

인구주택총조사, 내일부터 인터넷 조사

올해부터 등록센서스 방식...전국 세대중 20% 대상

참여하지 않은 대상 가구는 11월1~15일 방문 면접조사

“실례합니다, 가족이 몇 분이죠? 종교는 뭐죠?”

5년에 한 번 집에 찾아와 사졌는지 묻던 인구주택총조사가 업그레이드 돼 오는 11월 1일 본격 시행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가족 수와 주택 소유 유무 등의 기본 정보를 조사해 국가 정책을 세우는 중요한 자료다.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올 해는 일일이 집을 찾다니던 전수조사(全數調査) 방식 대신, 정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진행돼 더욱 정확한 정보를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호남통계청(청장 백만기)은 22일 “오는 24일부터 인구주택총조사의 인터넷 조사

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구주택총조사는 오는 11월 1일~15일 진행되고 전 세대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전국 세대 중 20%가 대상이다. 인터넷조사는 이 20%의 대상 가구 중 방문면접 대신,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대상 가구는 11월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를 한다.

인터넷조사 대상 가구는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www.census.go.kr)에 접속해, 조사안내문에 인쇄된 인터넷조사 참여번호를 입력하면 조사항목별로 응답할 수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도내의 인구, 가구, 주

? 인구주택총조사(census)

대상 전체를 하나하나 전수조사(全數調査) 하는 것을 뜻한다. 국제통계협회(ISO)에서 1900년 같은 날을 기준으로 모든 회원국이 공통으로 총조사를 한 이후 대부분 국가들이 끝자리가 ‘0’으로 끝나는 해에 총조사를 하지만 한국은 일제강점기였던 지난 1925년 처음 시작했기에 ‘5’자로 끝나는 해에 한다.

택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올 인구주택총조사의 특징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12개 기관이 관리 중인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21가지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정확도를 높였다는 점이다.

또 이 같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기 힘든 지역에 대해서는 가구표본(20%)을 정해

기존의 방식처럼 현장 방문 조사한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면 과거 5년마다 갱신됐던 자료를 해마다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예산도 크게 줄일 수 있다.

통계청은 정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이 예년에 비해 1445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지자체의 정책 활용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여주시와 구례군 등이 호남지방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와 각종 통계자료를 정책에 활용하고 있고, 올해 더욱 정확해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쓰임새도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백만기 청장은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정책수립과 지역발전계획의 근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다”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23.00 (-19.98) ▲ 금리 (국고채 3년) 1.65% (+0.01)

▼ 코스닥 676.30 (-10.20) ▲ 환율 (USD) 1138.60원 (+6.10)

한전,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대상’



한국전력이 22일 GWP코리아 주최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시상식에서 종합대상인 GPTW(Great Place To Work) 신뢰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22일 GWP코리아 주최로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시상식에서 종합대상인 GPTW(Great Place To Work) 신뢰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GWP, Great Work Place) 선정 제도는 ‘FORTUNE US 100대 기업’을 비롯한 EU, 중남미, 아시아 등 전 세계 46개국에서 GWP 표 준 진단 툴인 ‘GWP Trust Index’ * (신뢰경영지수)를 활용해 Trust, Pride, Fun을 각각 지수화해 평가한다.

한전은 103개 기업이 참여한 2015년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서 GPTW 신뢰대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으며, 특히 GWP 응모 첫 해에 종합대상을 수상한 기업은 한전이 최초이다.

한전은 2012년 조환익 사장 취임 이후 Happy Work Place(HWP)라는 추진

활동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상호 신뢰하는 행복한 기업문화 조성에 힘써왔다. ‘사장과 대화’, ‘비전 토크 콘서트’, ‘CEO 전직원 서한문’ 등 직원들과 경영진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을 마련했고, ‘빛가람 소통담방’, ‘소통 Lunch Meeting Day’ 등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추진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

광주테크노파크 ‘수출상담 주간’

26일~11월13일 19개국 초청 해외바이어 발굴

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광주TP)는 지역수출유관기관과 공동으로 26일부터 11월13일까지를 ‘광주초청주간(GIW·Gwangju Invitation Weeks)’으로 지정하고 해외바이어와 광주TP해외비즈니스센터장을 초청해 수출상담회 및 수출양해각서(MOU) 체결식을 진행한다.

이번 GIW 기간 서울에서 열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산업대전과 연계한 ‘2015 광주시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10월30일), 국제그린카 전시회와 연계한 ‘광주TP해외비즈니스센터 초청상담회’(11월13일)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2015 광주시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에는 요르단, 과테말라, 파키스탄 등

그동안 접점이 쉽지 않았던 나라의 해외바이어들이 초청된다.

국제그린카전시회 기간인 11월13일 열리는 ‘광주TP해외비즈니스센터 초청수출상담회’에서는 광주시가 잠재력을 가진 지역기업을 발굴해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명품 중소기업도 참여한다. 19개국 해외비즈니스센터와의 수출상담 및 현장방문을 통해 해외바이어 발굴이 집중 지원될 예정이다.

배정찬 원장은 “이번에 초청되는 해외바이어 및 해외비즈니스센터장과 명품중소기업간의 수출상담이 실제계약 및 수출로 반드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내 수출유관기관들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빈병 깨끗이 쓰기 동참해 주세요”

보해양조(주)와 한국주류산업협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은 지난 21일 광주시 동구 중앙로에서 시민들에게 이물 저감화에 대한 홍보물을 나눠주고 깨끗한 빈 병 사용을 위한 소비자 동참 캠페인을 펼쳤다. <보해양조 제공>

‘청년희망펀드’로 청년 미래 응원...광주 ‘통 큰 기부’ 행렬

김상열 상의회장 5억원 등 기업·은행 동참...소액기부도 줄이어

이전혀 삼성그룹 회장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펀드에 200억원을 기부하는 등 ‘청년희망펀드’에 대한 관심이 증폭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통 큰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기업인은 물론 은행장, 대학 총장까지 동참했고 소액 기부자도 줄을 잇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 김상열 회장은 22일 광주은행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사재 5억 원을 기부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지난 달 15일 기부가 첫 개시된 이후 광주·전남에서 출연된 기부금 중 최고액이다.

김 회장은 “청년이 희망을 갖고 새 출발을 준비하는데 하나의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며 “지역의 상공인들도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1일에는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이 우리은행 광주지점에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1억원을 기부했다. 임직원들도 600만원을 별도로 내놓았다. 정 시장은 지난해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첫 아너소사이어티(Honor Society) 회원으로 가입, 1억원의 성금을 기부한 바 있다. 또한 지난 8일에는 광주은행이 공익신탁

? 청년희망펀드

조성된 기금으로 청년희망재단을 설립해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탁 상품을 첫 출시하고, 김한 JB금융그룹 회장 겸 광주은행장이 첫 가입했다.

김필식 동신대 총장도 지난 5일 하나은행 금남로지점을 방문해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가입했다.

현재 청년희망펀드는 광주은행에만 300계좌(계좌당 최소 1만원) 이상이 가입

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20일 현재 7만 1251계좌, 59억9890만원이 기부됐다.

기부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월급여의 일정 비율 또는 일시금을 13개 취급은행에 계좌 개설과 함께 공익신탁 가입신청서에 서명하면 된다.

지난달 21일 KEB하나은행을 시작으로 22일에 KB국민·NH농협·신한·우리은행이 출시했다. 이달 5일에는 IBK기업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 8일부터는 수협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전북은행이 각각 출시하면서 취급은행은 모두 13곳으로 늘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회사 사정상 “급매” 합니다 (10월 31일까지)

상담문의
010-3605-5000

경매투자자

담양 금성면, 송학랜드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산 2-5번지 (담양댐 하루 바로 옆, 담양리조트, 금성펜션단지 1분거리)
- 대 2441평, 건 882평, 임 6726평 계획관리지역
- 과거, 박물관, 펜션, 식당, 찻집으로 운영함(구, 송학랜드)
- 시세/감정가 - 30억 정도
- 급매 - 17억 2천만원 (현,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 연 2.1%, 월 이자 220만원)

금호동 7층,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243-6번지 (서광병원 사거리 맞은편 코너)
- 7층중 7층 전체, 건 120평, 사면유리, 전망최고
- 과거, 뷔스바(7080) 운영
- 시세/감정가 - 7억 정도
- 급매 - 5억 2천만원 (유자 3억 6천만원 포함)

▶ 단독/공동투자 하실 분! 배우면서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 돈·빌려주실 분! 1순위 근저당 설정 연 10% 이자 지급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